논어 12편 안연 19장 · 원문·풀이

季康子問政於孔子曰：「如殺無道，以就有道，何如？」孔子對曰：「子爲政，焉用殺？子欲善，而民善矣。君子之德，風；小人之德，草；草上之風，必偃。」

독음 · 계강자문정어공자왈 여살무도 이취유도 하여 공자대왈 자위정 언용살 자욕선 이민선의 군자지덕 풍 소인지덕 초 초상지풍 필언

쉬운 풀이(요약) · 사람을 죽여 정치를 바로잡기보다 지도자가 선을 바라야 한다. 윗사람의 덕은 바람이고 백성은 풀이라 바람을 따라 움직인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季 끝 계 계 / 康 편안할 강 강 / 子 아들 자 / 問 물을 문 문

政 정사 정 정 /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 孔 구멍 공 공 / 曰 가로 왈

如 같을 여 여 / 殺 죽일 살 살 / 無 없을 무 무 / 道 길 도 도

以 써 이 이 / 就 좇을 취 취 / 有 있을 유 / 何 어찌 하 하

對 마주볼 대 대 / 爲 할 위 / 焉 어찌 언 언 / 用 쓸 용 용

欲 욕심낼 욕 욕 / 善 착할 선 선 / 而 말이을 이 / 民 백성 민 민

矣 어조사 의 / 君 임금 군 / 之 갈 지 / 德 큰 덕 덕

風 바람 풍 풍 / 小 작을 소 소 / 人 사람 인 / 草 풀 초 초

上 윗 상 / 必 반드시 필 필 / 偃 자빠질 언 언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